목회자 컬럼

유치부 이야기

최유진 전도사

노랗고 복실복실한 털장갑

어린 시절 아버님 품에 안겨 예배드린 것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아버님 어깨 너머로 구경한 교회 예배 풍경은 참 신기하고 재미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저의 첫 기억입니다. 교회에 관한 기억의 끈은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어여쁜 털장갑 하나로 떠오릅니다. 노란 장갑. 유치부 담임 선생님이 떠 주셨지요. "유진아,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선생님의 얼굴도, 이름도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 마음 속에 아직도 곱게 간직된 기억은 지금은 없어진 그 장갑의 예쁜 색깔과 포근한 감촉, 손수 장갑을 뜨실 정도로 절 아껴 주신 선생님의 사랑뿐입니다.

둘리랑 또치랑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 처음으로 교회 학교 유치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동부 전체가 한 2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희 반 아이들은 두 명. 저희 집 이층에 사는 네 살 짜리 꼬마와 이종사촌 언니가 소개해 준 다섯 살바기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반 재적 인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옆 동네 살던 이종사촌 언니가 이런 제가 딱해 보였는지 옆방 아이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층 아기는 제가 열심히 치토스를 사주어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쁘게 하고(애들은 동화 속의 공주님 같은 선생님을 잘 따르거든요) 거울을 보네, 기도를 하네,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네 살짜리 아이는 업고, 다섯 살짜리 아이는 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만화영화를 열심히 보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 옛날에 둘리랑, 또치랑 살았는데 -둘리와 또치는 당대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만화 스타다- 그 애들은 크레파스가 하나인데도 서로서로 나눠썼대! 아니, 크레파스가 한 통밖에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눠 쓸 거예요." 작전 성공!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 오기 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려니 힘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은 시시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도 다시금 튀어나오는 말, 말, 말.

그러던 중 함께 봉사하는 유치부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반 어떤 아이가 자꾸 결석을 해서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그 이유인즉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가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실패했구나 하는 심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뉘우쳤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저도 모르는 새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의 목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토끼쓰

우리 유치부에는 사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75년생 토끼띠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토끼쓰(토끼S)입니다. 토끼쓰의 입회 조건은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토끼띠는 아니지만 많이 먹기 때문에 토끼띠 선생님들이 특별히 가입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에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많이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치부 일이 육체적으로 참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 주고, 말 들어주고, 화장실 데려다 주고, 아이들 그림 붙이고, 교구를 옮기고... 성경 학교, 운동회, 나들이, 밖으로 나가요 등 큰 행사라도 있을라치면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수로, 아이들 간식으로 주린 배를 채우다 못해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서 라면•떡볶이•피자를 먹으러 갈 때도 있습니다. 많이 먹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봉사하기 때문이라면 유치부의 토끼쓰는 계속 건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함즐
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1호
발행일 1998년 3월
발행처 주님의 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5-6
강남 YMCA 1층
T. 511-1497~8
본 선교지는
두 달마다 발행됩니다.

CONTENTS

1
유치부 이야기 /
최유진 전도사
2
IMF 사태와 출애굽의 고난 /
조남홍 집사
3
호스피스 봉사자 감사편지
의학상식 / 김경빈 집사
4~5
특집 / 교회학교
6
베트남 선교여행
성경통독 수련회를 마치고 /
정현철(중등부)
7
엄마에게 / 동희제(중등부)
법률상식 / 장현길 집사
교회소식
교인동정
8
시 / 이희숙 집사
만화 / 김유니스(소년부)
98 교회주제가

시론

IMF 사태와 출애굽의 고난

조남홍 집사

옛날 이야기 중에 '곶감' 이라고 하니 놀라 도망쳤던 호랑이가 'IMF다' 하니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고 한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IMF가격' 은 기존의 '가격파괴' 보다 수십 배의 위력을 가진 살인적 가격(?)을 의미한다. 90% 세일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빈약한 반찬을 보고 투덜대는 손님에게 식당 아주머니는 거침없이 'IMF반찬' 이라고 대꾸하면 손님은 그에 수긍한다. 이렇듯 IMF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며 우리 생활을 죄어매는 불쾌의 대상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IMF란 무엇인가? 정말로 무섭고 유해스러운 대상인가?

가령 빚을 많이 지고 쓰러져가는 기업(또는 가장)에, 돈을 빌려 줄 터이니 월경상비(또는 생활비)는 얼마로 동결하고 또 얼마는 건실하게 장사(투자)하여 돈을 벌어, 빚을 갚는다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주(錢主)가 바로 IMF이다. 이러한 주문을 수락치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을 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기업은 도산하고, 가정에 비유하면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못 내기 때문에 암흑의 비참함을 피할 길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세대 내려 온 가풍을 바꿔야 하듯, 기업이 장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듯, 국가의 경영 운영방식도 바꾸라는 요구가 지금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며 어려움이다.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국제기준에 맞추라는 주문이다.

따라서 IMF는 우리 나라 국가예산 규모, 통화량,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이자율 등 모든 생활 내용과 국가 거시경제 지표를 지정하고 있다(물론 우리 정부와 협의과정은 갖지만). 이렇게 IMF는 우리 나라 살림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 통제 기간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1570억 불이라는 외채를 우리 나라가 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IMF체제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흑의 IMF 터널을 하루 속히 빠져 나가려면 어찌 해야 하나? 그 해법은 너무나 자명하다. 먼저, 우리 모두의 자세 변화이다. 근검절약의 생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안에서 두툼한 스웨터를 끼어 입고 있는 영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한 집 한 등 끄기는 76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1.5ｌ 페트병을 변기에 넣어 사용할 경우 340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한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 원리(경쟁원리)의 확립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외교와 치안과 환경 보호, 그리고 자구 능력이 없는 극빈자, 연약자들을 돕는 일이 그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의 교통 혼잡은 공해와 시민들의 시간 낭비 등 사회적 비효율이 항상 문제시되어 왔으며 그 해법은 고작 특정 지역의 통행세 부과나 10부제 정도였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떠한가. 운행 차량 대수가 격감했으며 서울의 공기가 맑아졌다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IMF 때문에 국민들이 자중해서 그런가? 필자는 그쪽보다 오히려 휘발유 가격의 상승이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휘발유 가격이 왜 인상되었나? 그것은 환율의 저평가 때문에 그리 되었고, 정부도 휘발유 가격의 자율화 조치를 취했다. 예전 같으면(정부통제정책이 강할 때)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어떤 경우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못올리게 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외채가 쌓이기 시작하고 사회적 비효율이 계속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휘발유 판매업자들의 폭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쟁을 붙이자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싼 곳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발유 공급자가 혼자일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독과점 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있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이다.

셋째로, 시장경제 원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조직 · 정부 · 기업 등)이 바뀌어야 하며 정치 관행, 금융 관행, 기업운영 관행 등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IMF가 요구하는 것들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IMF 요구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했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국가의 외채' 와 '나 개인' 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의문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 그 해답은 간명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는 미국 돈인 '달러' 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다. 상품 · 자원 · 서비스 등을 사고 파는 데는 '달러' 로 지불되고 받기도 한다. 국가를 한 개 기업으로 보고 그 기업을 융성하게 만들려면,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달러)을 많이 벌고 덜 써야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화폐로 외국에서 아무 것도 살 수 없다.

참고로 IMF(국제통화기금)는 1945년 설립되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180여 개국이 가담하고 있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은 가맹국의 환율정책,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 규제와 가맹국들의 국제수지를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외환 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과거 영국에도 멕시코,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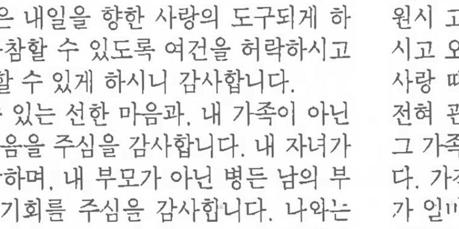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애연가나 애주가가 담배 · 술을 끊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의 '금단현상' 에 불과하다. 이 금단현상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건강을 더욱 해치고 급기야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임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하며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금번 IMF 구제금융 조치는 애굽 탈출의 고난을 역사하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깊은 역사하심이며 축복이며 은혜라고 감히 생각하고 싶다.

(경총 부회장)

편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려는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감사 편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호스피스 봉사의 시작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사랑의 도구되게 하옵소서. 호스피스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봉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내 가족이 아닌 남의 가족을 돌보는 넓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닌 병든 남의 자녀를 사랑하며, 내 부모가 아닌 병든 남의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지만 나보다 약하기에 건강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써 수심을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원자력병원 소아암 병동, 서울대 병원 소아암 병동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시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일 새 힘 주시어 선한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비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엄마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해 지친 가족들을 쉬게 하고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콧물 눈물 범벅을 하며 우는 어린 환자도 달래어 잠재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매월 생일 잔치를 베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줄여 가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사별의 고통을 당한 가족과 함께 울 수 있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4년 동안 매월 셋째주 수요일은 명절이든 국경일이든 한양대 병원 환자들을 위한 수요예배 찬양을 맡겨 주셔서 바쁜 발걸음들을 아침부터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대에 암이 생겨 그 어떤 작은 소리도 낼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글로 대화하며 답답해 몸부림치는 환자를 보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성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한 감사합니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휠체어마저도 탈 수 없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로 봉사의 현장에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휴지 한 장 집을 수 없는 이들의 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기력마저 없어 대독해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길 입퇴원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차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늘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작은 봉사가 열매맺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자 같았지만 내게 있는 봉사의 도구가 얼마나 많은 지 주어도 주어도 한없이 줄 수 있는 부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개발되는 사지백체 그 어느 지체라도 도구됨을 알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고, 가슴 속 깊은 마음들 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참기름을 팔아 남은 이익으로 도우려 할 때 외면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하는 일을 알고 일부러 팔아주는 동역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끊임 없는 병든 자와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희망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어 그들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자가 되겠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속 있게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녀의 시신마저도 퇴원 수속을 할 형편이 못되어 장례식도 못치르며 주저 앉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모을 수 있는 친구들을 주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던 첫사랑을 잊지도, 식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도구되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 그들과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가난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는 따뜻한 이웃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함께 아파해 주었으며, 내 눈물을 닦아 주었고, 낙심하며 절망했을 때에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친구였다고"

의학상식

마이너스 발상이면 "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가?

김경빈 집사(한의학 박사)

매사에 긍정적인 발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 즉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발생되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로서, 특히 이 중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분비되는 주된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놀아드레날린, 베타 엔돌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세포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인데, 화를 내거나 긴장될 경우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대단히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잘 내거나 강한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이 되면, 놀아드레날린의 독성에 의해서 질병, 특히 성인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자주 반복이 되면 노화가 촉진되어 장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원기를 도와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건강해집니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르핀의 종류는 약 20여 종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쾌락을 주는 호르몬은 바로 베타 엔돌핀으로서 그 효력은 마약인 모르핀의 5배를 능가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진리 안에서 즐거워 하는 자에게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 장수하려면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집 / 교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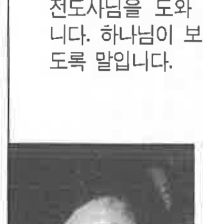
영아부

예쁜 다리, 예쁜 손 아니 해도

부장 김원경 권사

아기가 태어나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영아부에선 꽃을 준비하고 어른들은 환영하며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동안 영아부에 오게 됩니다. 3부에 드려지는 여건때문에 영유아는 물론이고 때론 형제들이 같이 있게 되어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비록 기도 시간에 예쁜 다리, 예쁜 손도 안하고 그냥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을 구경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선 아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영아부장으로 두 해째를 맞이하는데도 늘 준비가 엉성하고 영아부를 위해 얼마 만큼의 시간과 기도를 드렸나 생각하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장이라는 봉사의 자리에 두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이영란 전도사님을 도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아부가 되도록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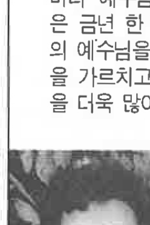
유아부

"아! 그러셨군요!"

부장 김경희A 권사

"물고기 둘, 떡 다섯 개 작은 도시락…♬…"

선생님과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 앞에서 율동과 노래를 한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이, 아니면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두 눈만 반짝거린다. 더러는 장난치는 아이, 우는 아이, 심지어 누워 있는 아이들도-. 그러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쳐들며 선생님들의 흉내를 내고 따라 한다.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꼬옥 감고 기도도 드린다. 아이들이 유아부에 들어서면 예쁘게 웃고 인사도 할 줄 알고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헌금 봉투를 내밀며 기도한다고 눈을 꼬옥 감는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셨고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셨군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금년 한 해도 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업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키워 가겠습니다.



유치부

어린 천사들

부장 김갑수 권사

주일날 아침이면 남몰래 웃으면서 집을 나서게 되는 것은 오늘 만나게 될 유치부 친구들 모습이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안보였던 다혜는 오늘은 나오겠지. 지훈이는 왜 안나왔을까? 아참 - 유년부로 진급해갔지. 헌금통에 하얀 봉투를 넣고 두 눈을 꼭 감고 선생님의 기도를 기다리는 애진이. 아직도 유아부를 못잊어서 안들어오겠다고 떼쓰는 홍욱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 성가대 친구들.

이들 모두가 이 다음에 이 나라의 큰 일을 해 나갈 어린 천사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드리는 모습, 말씀을 듣는 태도와 친구들과 협동하는 마음을 어린 천사들에게 잘 전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유치 2부

말씀과 은혜 그리고 나의 결단

부장 이혜자 권사

모두가 어렵고 힘든 '98 역경 속에 쉽게 넘어지지 말며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신과 새로운 희망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그 크신 권능의 말씀을 힘입어 다시 나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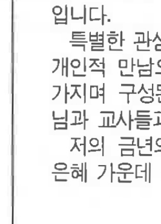
맡겨주신 직분 유치 2부 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한 이 맑은 눈망울들.

이 맑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사랑을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믿음의 삶과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예쁜 모습만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라는 분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 모습과 믿음의 어린이 생활, 사랑 나누기를 실천하는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어린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그들 부모님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매일 새벽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선생님들과의 개인적 만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구성된 98년도 세부계획 안에서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의 금년의 결단과 작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새날의 주인공이 되자

부장 최상인 집사

1996년도 처음 주일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공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이들에게 느끼고 있는 그대로 써보라고 하였는데, 한 학생이 하나님은 "천하무적 마징가 Z"라고 쓴 적이 있었다. 이렇게 그 아이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모습이 그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마징가 Z"로 생각한다면, 실제 존재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금방이라도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분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각자 체질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상황도 주시곤 한다. 이러한 훈련의 시간이 올 때 "마징가 Z"라고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먼 분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추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실제적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항상 같이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삶의 동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새날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하여 전도사님과 유년부 교사들은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1998년을 힘차게 시작하고 있다.

초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부장 정오석 집사

나는 평소 교사들을 향해 교사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에게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교사 기도회, 월례회, 수련회 등등...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어찌 그것뿐이랴. 교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심방도 해야 하고 때로는 호주머니를 털어 맛있는 것도 사주어야 하며, 생일날 방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교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들과 그의 부모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분명한 것은 그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렇게 할 때만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사랑스런 자녀들을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부장인 나 또한 우리 반의 학생(30명의 초등부 교사)들을 위해 전화하고 편지 쓰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과 좀더 친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다. 나는 우선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협의해서 98 '초등부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해 새날을 살아가는 어린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초등부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어린이와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부장으로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받들어 섬길 것이며 교사들에게 또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

소년부

소년부에서 알립니다

부장 나영일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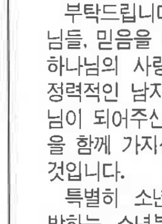
소년부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어린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년부에는 손요한 전도사님과 남옥련 권사님 그리고 24명의 선생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머리 큰 대학생들만 가르치다가,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대답하는 꼬맹이를 상대하는 것이 혼자서 화가 나서, 나는 어린애들과는 못 놀겠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아이들의 깨끗한 영혼을 접하면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아이들은 나보다는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아이들과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나 같은 어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교회학교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마저도 여자들에게만 둘러 싸여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교사 1년, 총무 1년 만에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은 순전히 남자 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빠 노릇을 잘하고 싶은 집사님들,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싶으신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고 싶은 30-40대의 정력적인 남자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성과 부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소년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새롭게 발하는 소년부가 되자는 교육 표어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가르치고,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등부

주님의 모습

부장 윤좌원 집사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중등부"가 되자는 표어를 내걸고 98년 힘찬 출발을 했다. 새로운 전도사님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서는 1)예배자로 거듭나기 2)찬양자로 거듭나기 3)전도의 도구로 거듭나기를 세웠다.

선생님은 모두 34명. 학생은 165명이다. 그러나 신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그때 우리 교인들의 지원이 요망된다.

중학생들은 이미 어른의 초기 단계의 학생들이다. 속을 썩이는 듯하기도 하고 화난 얼굴로 돌아서 보면 어느 새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선생님들을 오히려 위로하려 든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런 얼굴들을 통해 우리는 생각한다. 저 얼굴들과 우리 얼굴들이 합친 그곳에서 어떤 주님의 모습을 찾아야 할까 하고….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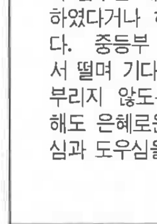
과욕을 부렸나?

부장 김재현 집사

부족함과 아쉬움이 적지 않았던 지난 1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보다 나은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른 시간에 등교(登敎)하여 부지런한 학생들이 썰렁한 '무용실의 아침' 을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보다는 이름까지도 기억하여 불러주는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등부를 위한 기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유능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교역자 반열 중의 한 사람(최소한 교육전도사 수준)으로 착각하였다는 어느 끼 있는 학생의 아첨성 발언에• 크게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뼈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도 노력하겠습니다.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알고 잘 수행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거나 하는 비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실(室) 밖에서 떨며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선점자의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은혜로운 고등부가 되도록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청년 1부

선한 사마리아인

부장 이병식 장로

주님의 교회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드신 예화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누가 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의 배경과 그 준비된 여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한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피하였던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아 그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지 못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심성적(영적)으로 또 여다 조건에서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추가 부비는 내가 또 주마."

최소한 타인을 도울 만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두 사람이 그를 돕지 못한 이유야 어떠하든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를 도운 참 이웃은 바로 그 준비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사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영적인 준비는 물론 육체적•경제적•사회적 준비를 항상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소서." 오분 대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

올해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즉시 동역할 준비를 갖추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청년 2부

청년 2부의 새해 소망

부장 남승호 집사

작금의 한국의 사회•경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과 한국 교회에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살찌우며 사치하며 교회의 겉모양을 쌓아올리는데 열심히 다투어 쏟아 넣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진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의 군사들로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진실로 우리 민족이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앞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2부는 금년에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되돌려 드리는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깨달아 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해 가고,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하여 훈련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비전을 키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2부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한국과 세계를 향한 크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고문

베트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

베트남을 다녀온 청년들이

청년부에서는 지난 8월 7일 권오승 청년부 부장 장로님과 이승애 권사님, 정한조 전도사님(당시), 청년부 형제 자매 6명 등 총 9명이 베트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번 선교 여행은 선교인지 관광 여행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일정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첫째 경실련에서 파송된 박선생님이 운영하는 베트남 직업학교에서 노동을 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베트남 한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열댓 명이 참가한 수련회에 서희들과 광주 선교회에서 온 분들, 그리고 장로님, 전도사님이 참여했습니다. 한인학교 아이들은 한국 어린이답게 개구장이와 새침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순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외국 생활을 통해서 폭넓은 시각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박선생님은 서울공대를 졸업하시고 이화여대를 나오신 부인과 결혼하신 후 수년 동안 시민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경실련의 베트남 프로젝트로 오셔서 현재까지 일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님을 믿고 일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정치를 하기 위해 경실련을 그만두자 3개월 동안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경실련은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박선생님은 산 사람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아직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며 복지와 같은 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거리를 청소해 준다든지, 농사를 돕는다든지 하는 것을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트남 거리엔 쓰레기통이 없어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좋지만 그 비용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이분의 삶이 더욱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다음의 일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한 후, 할렐루야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10여 명 더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며칠 더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갔을 때, 할렐루야 교회 팀에서 먼저 돌아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분이 박선생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서 서류봉투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한 읽을 거리인 줄 알고 출국 수속에 바빠 나중에 봉투를 열어 보았더니 그 속에는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1,000달러로 나무와 필요한 부품을 샀던 영수증으로, 공식 영수증 양식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상인들이 손수 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저희가 만난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 분은 여자였고 또 한 분은 남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라는 사실이나 복음을 전한 것이 발각되면 추방된다고 합니다. 보트 피플로 홍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자기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정부로 부터 시민권조차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조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경비를 들여 해외로 선교여행 가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두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친구입니다. 그 분은 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는 그분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 여행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고문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마치고

정현철(중등부)

제가 성경 통독 수련회에 가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나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금방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순한 재미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완독을 못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 하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놀기를 너무 좋아하고 집중력이 없어서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고 횡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서 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함께 오지 않아 걱정되고 긴장했습니다. 처음 놀란 것은 성경을 아주 빨리 읽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가지도 못했으나 점점 눈에 익어 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성경을 읽으려니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때 난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엄마는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나는 새벽 시간이 제일 싫었습니다. 집중력이 별로 없던 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려니 지루해서 낙서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나에게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후에 있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형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재미있게 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집사님들께서도 잘 대해 주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셋째날 아침 지원군으로 안사무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전에 안사무엘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불의 사자' 김화수 목사님보다도 어찌나 태풍이 몰아치듯 빠르게 잘 읽으시는지 '바람의 아들' 에서 '태풍의 아들' 이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이불을 가지고 복도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계속 시끄럽게 코를 골으셨기 때문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기온 속에서 밖에서 잘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집사님에게 발견되어 예배실에 다시 들어가 잘 수 있었습니다.

넷째날 밤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밤 아무도 코를 골지 않았는데 김화수 목사님만 엄청 시끄럽게 코를 골았습니다. 나와 같이 있던 형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코를 크게 골까?" 하며 잠을 잤습니다.

성경을 다 읽게 되니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보람 차서 비록 힘들고 피곤했지만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다온 후 하나님께서 제자신이 바랬던 강한 믿음을 주셨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중 요한계시록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편지

엄마에게

동희제(동현수 집사 딸)

엄마! 많이 아프지? 미안해요. 다 내가 말 안 듣고 속썩여서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난 엄마 속썩이면서 나쁜 짓이나 하구…
그때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야.

엄마를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날일지라도, 아니 엄마가 기적적으로 다 나아도
난 엄마한테 변함 없이 꿋꿋이 착하게 살구
고등학교, 대학교… 엄마가 원했던 의사도 될 자신이 있어요.

엄마가 지난 1년 반 동안 괜히 우리들 힘들게만 했다고…
이런 아픈 엄마 있어 봤자라고 했던 거 엄마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알아요.
나는 엄마가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 주는 것도 다 괜찮아요!
엄마만 살아 있으면, 아니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발랄하고 밝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이 편지 쓰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구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나 울지 않을게.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나면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 커피 타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하늘 나라 가면 엄마 볼 수 있겠지? 그치?
엄마 꼭 약속해 줘… 엄마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고… 응?
나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테니까요.

나보다 조금 먼저 하늘 나라 가도 되잖아?
엄마가 나 낳기 전에 혼자서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늘 나라에서도 나를 기다려 줘요! 언젠가는 엄마한테 갈 테니까…
그리고, 나 절대 잊으면 안돼.
아무리 하늘 나라에 나보다 착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하고 윤제만 생각하고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줘!
나, 엄마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관 속에 윤제하고 내 사진 넣어 달랬던 거…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랬던 거…

엄마! 아무리 힘든 일이 따를지라도 엄마가 원했듯이 바랬듯이 그렇게 클께요.
윤제도 사랑하고, 아빠한테도 공손하게 하고… 내 할일 충실히 다 하고…

그럼 이만 쓸께요… 사랑해요!

회제가
1997년 8월 10일

P.S. P.S.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래! 사랑해! 엄마도 나 사랑하지?

(동회제 엄마 신은희 집사님은 사랑하는 남편, 회제, 윤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97년 8월 12일 소천하셨습니다.)

생활법률상식

지급명령제도

장현길 집사
(변호사)

질문: 10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이 있는데 수차 독촉해도 차일피일 채무자가 시간만 끄는 경우, 사업관계로 도저히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은?

답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 송달되고 난 후 2주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 제기시 붙일 인지액의 반액으로,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요령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반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2회분을 예납한다.
3.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독촉절차 비용의 내용으로 목록을 당사자 수+1통을 제출한다.
4. 채무자 주소지에 시, 군법원이 있을 경우 그곳이 관할법원이 된다.

교회소식

일본 TAMA 만돌린 합주단 연주회

일본 TAMA 만돌린 합주단이 주님의 교회를 방문, 오는 4월 5일 주일 저녁 7시에 YMCA 4층 대강당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는데 1부에서는 그라나다 · 보리밭 등이, 2부에서는 찬송가 · 도레미 노래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연하게 될 일본 TAMA 만돌린 합주단은 지난 96년 12월 1일 YMCA 4층 대강당에서 첫 연주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한편 TAMA만돌린 합주단원 45명 중 김향숙씨는 재일교포로서 유일하게 크리스천이다.

정한조 목사 결혼

정한조 목사님이 2월 16일 오후 2시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신부 이상순양을 맞아 결혼식을 올렸다.

이재철 목사

이재철 목사님은 오는 6월 셋째주 주님의 교회에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월부터는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시무하시게 된다. 이재철 목사님 퇴임후 1년간 설교를 담당하실 목사님으로 임영수 목사님이 오시기로 되었다.

교우동정

▶ **결혼**
- 윤성아: 윤병학 · 성양자 집사 자녀 (36구역, 1월 17일)
- 나경민: 나삼주 · 김수자 집사 장남 (68구역, 2월 8일)

▶ **출산**
- 나형빈 성도 · 강영은 전도사: 득녀 (이름:나혜수, 1월 3일 33구역)
- 이웅배 · 조소희 집사: 득남 (이름: 이종윤, 1월 3일 36구역)
- 김환경 · 조경옥B 집사: 득남 (이름: 김용길, 2월 5일 37구역)

▶ **이사**
- 황규완 · 이연자 집사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현대A 103-701
- 김혁 · 오영숙 집사
  강남구 삼성동 홍실A 4-401
- 이석현 · 홍현영 집사
  잠실동 주공A단지 525-1303

▶ **소천**
- 하승락 집사 부친상(2월 5일 13구역)
- 장동석 성도- 정경숙 성도 부군상 (2월 10일 73구역)

시

광풍노도, 이 수치의 거품을

이희숙 집사

내 손이 나를 구원하리라
독수리처럼 내려 꽂혀
나를 옮키고 비상하리라
열꽃 바다, 황홀한 해거름
태양 가까이 나를 옮겨 놓으리라

두 손으로 산당을 세우리라
갈망의 금송아지 노래 부르며
굽은 등 펴지 않던 나날들
해무리 밖을 맴돌던 갈증의 나날들
벼랑 끝, 어질머리

여물어, 돌덩이로 여물어
서에서 동에서 천지에서
단죄의 돌덩이 날아든다
돌무더기 속, 으스러진 늑골
바람조차 정지한 삿갓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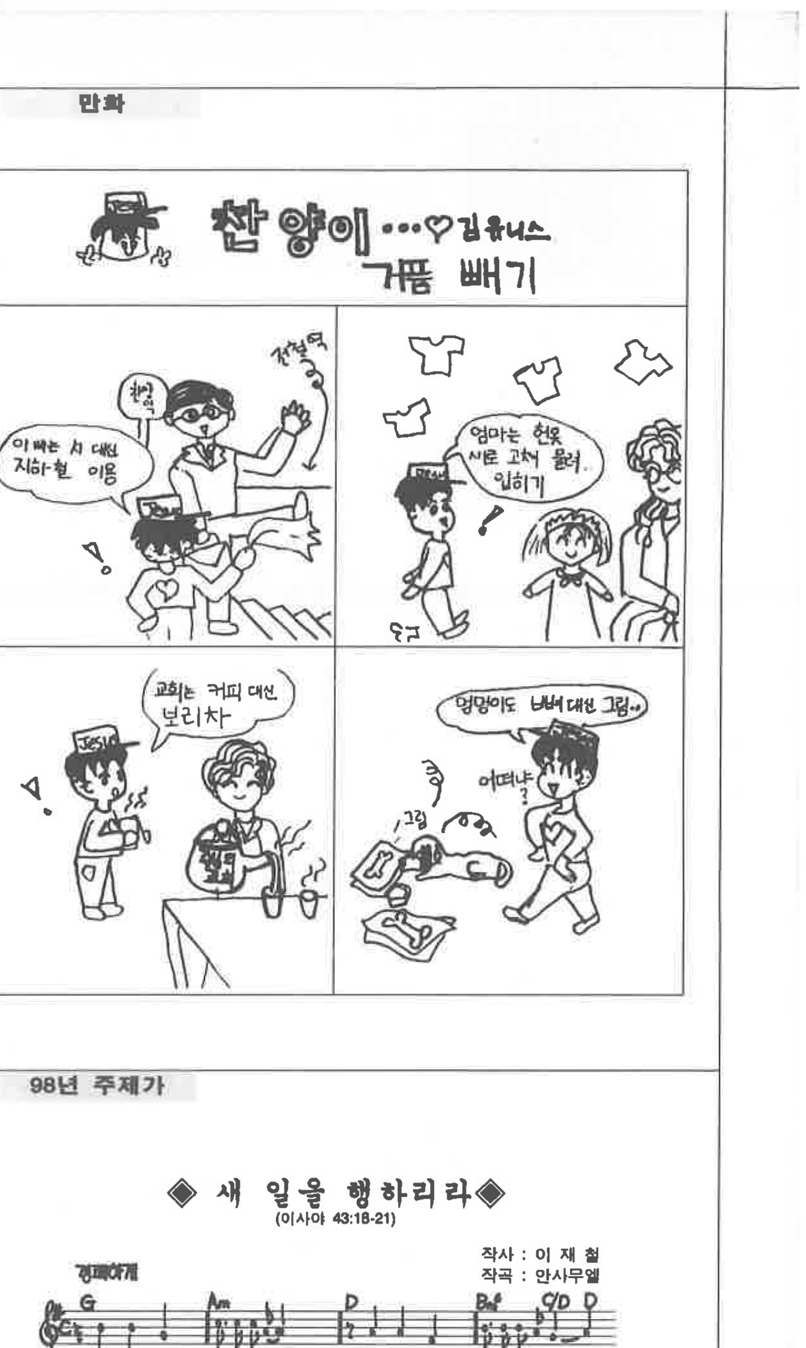
마디마디 흔들리는 뼈를, 내 살을 치소서
번거로운 골절, 번뇌도 함께 치소서
낮과 밤이 갈마들어 조여듭니다
밖에는 칼,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이르기 전
꿈조차 함께 물어 장사지내 주소서

세상 무릎 꿇리신 님이시여!
가슴 떨리어 죄를 알게 하신 그대여!
낮고 낮게 엎드려 그대 얼굴을 구하오니
광풍노도, 이 수치의 거품을 거두워 주소서
너희는 죽어야 산다 하신 님이시여!
그대, 나의 기도여!

내가 들었노라, 들었노라
너희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움은 아닐 것을!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 사망이 없느니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치 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둡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다 내게로 얼굴을 돌릴지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지니라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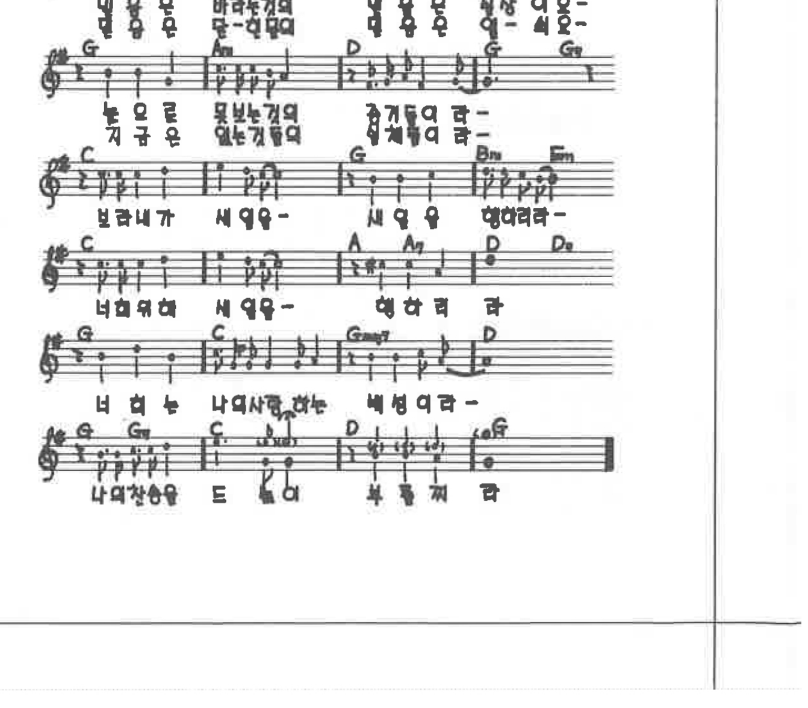


98년 주제가

◈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8-21)

작사 : 이 재 철
작곡 : 안사무엘



보라내가 새 일 을 - 새 일 을 행하리라 -
너희위해 새 일 을 - 행 하 리 라
너 희 는 나의사랑 하는 백성이라 -
나의찬송을 드 높 이 부 를 찌 라